제11강 노장과 해체론

(1교시)

1. 노장과 해체론－개방성의 기원에 관하여

(1) 노장과 해체론: □노장은 동양의 해체론이고, 해체론은 서양의 노장이다.□

☞ 동아시아의 사상사적 표면이 유가 사상이라면, 서양의 그것은 플라톤주의

☞ 플라톤주의: 분석의 절대화, 정명론(-사회내적 관계 자체를 규정), 동일성의 사유, 본질주의, 목적론, 정태주의(-데리다의 비판내용), 위계
노장과 해체론: 제일(齊一), 무명자(無名者), 차이, 반본질?반목적론, 생성론, 변화 중시

⇒ 文明=Modern(도시화): 우리의 삶의 얽어매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.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이 바로 해체론.

(2) 분(分).형(形).명(名)의 해체로(⇒ 유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형화된 삶을 해체함.)

☞ 기록학(문자학)은 언어의 바깥과 여백을 언어의 안쪽에서 드러나게 하는 글쓰기 □無名者□
* 無名: 언어다운 것을 표현해낼 수 없는 언어이자 그 말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것. 여백. 바깥. 타자.

(2교시)

☞ 포정(庖丁의 해우(解牛): □하늘이 낸 결에 따라 큰 틈바구니에 칼을 밀어 넣고 큰 구멍을 따라 칼을 움직이는□(依乎天理, 批大, 導大. 養生主) 해체의 방법
* 포정 해우 고사

☞ 有/無, 善/惡, 美/醜, 是/非의 대립에서 상생(相生)의 논리 포일(抱一), 제일(齊一)로 → 무물(無物)로의 회귀는 사물의 소멸이 아닌 형상, 규정성, 구분가능성의 부재에 이르기 → 하향 초월

☞ 『노자』의 하늘의 그물(天網) - 사물의 개체 규정을 사물 전체의 차이 관계에서 보는 것

(3) 도의 의미－**개방성**의 기원

☞ **무물(無物)**, **무극(無極)**으로의 회귀는 제물(齊物), 제일(齊一)이 경험되는 곳 → 보편 일자 부정

☞ 유무의 상생적 꼬임과 **도추(道樞)**(-열고 닫음) → 구조를 벗어난 중심 → 개방성의 근거로서의 개방성

☞ 도가 내는 통로, □우리는 그 구멍에서 어떤 오래된 미래가 생성하고 있음을 확신한다.□

⇒ □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라.□

(3교시)

2.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서의 □무위□(無爲)

(1) 유위(有爲)와 무위(無爲) : 교화적 행위와 규제적 행위, 도덕과 정치
* 無爲: 유희, 노는 것.(노동을 위해 내 몸을 쉬고 풀게 함.)
* 有爲: 맹자,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한다.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. 인간은 그 가능성을 선천적으로 지닌다. (명분, 규범의 가치)
* 形爲: 유위보다 한층 나아간 개념. 한 사람에게 의무로서 주어진 과업. 직분.

(2) 무위(無爲)와 형위(形爲) : 자연스러운 삶의 행위와 법률적 행위

(3) 소요(逍遙)하는 무위(無爲)의 삶을 찾아서

* **무위자연의 삶**: 당시 국가적으로 구속됐던 개인의 삶에서 탈피하고자 함. 간섭하지 않는 정치(청정무위 淸靜無爲)